

• 2023 •

제 1 호

KIP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23 정부혁신 최초·최고 BRIEF

위기에서 꽃 피운 혁신, 칠곡 DRIVE THRU 검사소

차남준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연구실
홍성우 전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연구실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연구실



위기에서 꽃 피운 혁신, 칠곡 DRIVE THRU 검사소

차남준 행정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

홍성우 행정안전연구실 전문연구원

코로나? 코로나!

흑사병 이후 최대의 팬데믹

2020년 1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발한 COVID-19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국가들은 외부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앞다투어 국경을 폐쇄하였고, 지역사회는 전염병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 정부는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출입국자에 대한 검사 강화, 확진자 동선 추적 및 접촉자 확인, 방문자 목록 작성 등 국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코로나 팬데믹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 확진자의 수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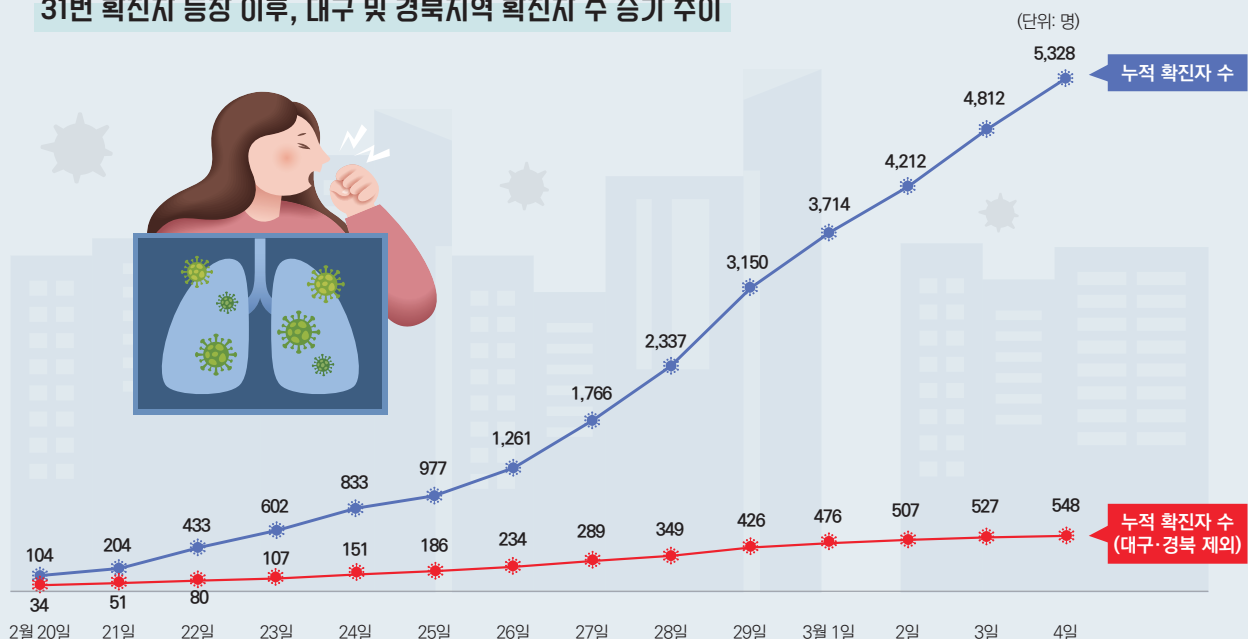


31번 확진자

2020년 2월 18일 COVID-19 감염자를 추적하던 중, 31번 확진자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이 확진자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 전체에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의 지리적 폐쇄까지 언론에 오르내릴 만큼 사태는 심각해 보였다.

이러한 지역의 위기는 당연하게도 칠곡병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해당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도 병원의 역량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 검사에 투입되어 왔다. 그러나, 확진자가 폭증하기 이전의 검사 방법으로는 검사자 수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사실은 자명했다. 이전 방식은 COVID-19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오면, 한 명씩 별도로 격리된 검사소로 안내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진은 매 검사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보호복, 장비들의 교체를 해야 했고 그 때문에 의료진의 피로도는 증가하고 검사효율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31번 확진자 등장 이후, 대구 및 경북지역 확진자 수 증기 추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대구·경북 지역과같이 급작스럽게 확진자가 폭증할 것에는 대비하지 못했다. COVID-19 억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느낀 대구·경북 시민들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COVID-19 확산 소식을 들으며 안전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느끼고 있었고, 일부는 이러한 감정을 악성 민원 등의 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월 22일 칠곡병원 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COVID-19가 확진되었음이 알려졌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과 접촉한 병원 내 직원의 수는 2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었다. 칠곡병원의 앞서 우한의 사례에서 상급병원의 붕괴가 지역사회의 방역시스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이는 곧 지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칠곡병원 직원들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방법! —

대구 경북지역에서 COVID-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던 때 즈음, 칠곡병원의 경영진은 한 문서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 문서는 전날 진행되었던 감염학회의 회의록으로, 그 안에는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COVID-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었다. 초기의 아이디어는 검사자들 간의 상호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 외곽을 따라 자동차들이 이동하며 한 명씩 자기 순서에 맞추어 검사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칠곡병원은 이 방식의 핵심이 넓은 장소가 아닌 자동차에서 검사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COVID-19 검사소를 준비하게 되었다. 자동차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로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차와 차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부분 희석되어 감염의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진과 피검인이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매 검사마다 옷과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내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

2020년 2월 22일 밤 10시 경, 대구시 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의 회의가 열린 직후,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 위험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결정되었고 칠곡병원도 상급병원으로써 코로나 대응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회의가 끝난 직후, 3인의 병원 경영진이 모여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드라이브스루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사실 상황의 위급성 때문에, 드라이브스루의 효과, 부작용을 정확하게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고 드라이브스루를 위한 준비가 병원에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구는 준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수준의 위험한 상황이었고 선택을 보류할 여유는 없었다.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뒤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칠곡병원에는 드라이브스루를 위한 검사소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23일 오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칠곡병원에서 시작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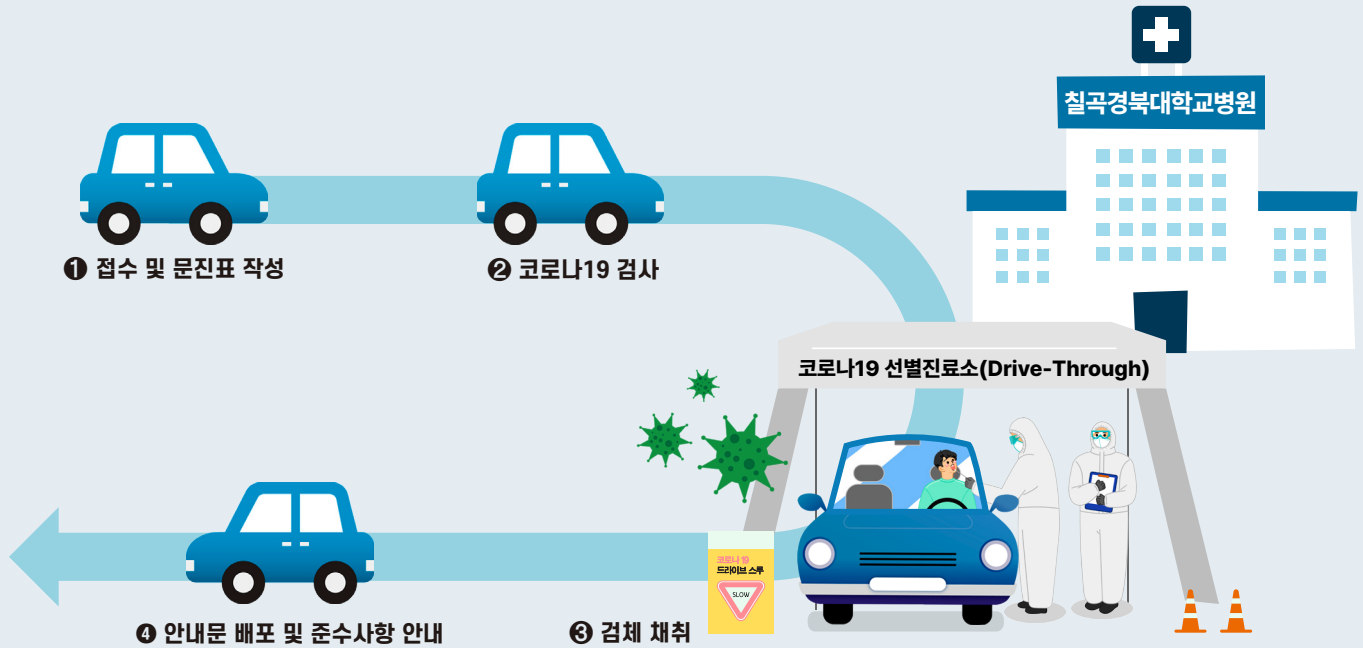
결정은 효율적으로

코로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대한 칠곡병원의 의사결정 구조는 매우 단순했다. 원장, 처장, 교수 1인으로 구성된 3인 의사결정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큰 결정들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빠른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드라이브스루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판단에 이를 맡김으로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점차 안정시켜나갔다. 이외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다.

세 번의 여름과 네 번의 겨울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드라이브스루의 도입은 당초 경영진과 실무자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검사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만 아니라, 검사에 소모되는 물품의 양도 획기적으로 줄일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 시간은 1인당 몇 시간이 걸리던 방식에서 1인당 5~10분 내외로 단축되었으며, 환자들 간의 교차 감의 위험도 비약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진 방호복과 장비들에 대한 교체, 검사 장소에 대한 소독 및 환기 절차도 생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기존의 방식보다 20~30배 정도 빠른 검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지쳐가는 의료진

드라이브스루의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수는 견잡을 수 없이 증가하였다. 금방 끝날 것만 같던 코로나는 수년이 지속되었고 드라이브스루를 포함한 코로나 검사소는 늘 긴 줄이 이어졌다.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이를 감당할 의료진의 시간과 역량은 한정되어 있었기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여름이면 내리쬐는 띄약별에 달궈진 검사소에서,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 코로나와 싸워나갔다. 부족한 일손을 메꾸고자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남은 요원한 일이 되어 갔다. 이러한 가운데, 검사소를 찾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쌓아놓은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갔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의료진을 힘들게 하였던 것은, 이 전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힘들이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

그러나 힘들다고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 누구도 일에 소홀하거나 미루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침이 되면 검사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이 일이 얼마나 고된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이런 의료진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묵묵히 노력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의료진의 이러한 노력을 알아주는 시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어린아이들이 의료진에게 고맙다며 보내준 선물과 편지를 보며 의료진은 힘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도 하였다. 의료진을 지탱하게 해준 또 다른 버팀목은 자긍심이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팬데믹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전에서 싸우고 있다는 자긍심이 의료진이 3년 4개월의 코로나 시기를 버티게 해준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과거는 미래의 디딤돌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2010년 중반에 발생한 메르스 때 전염병 관련 지침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매해 전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관리 체계가 느슨해지고 관련된 설비들도 노후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는 메르스와 다른 특성을 지닌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5년 전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어려웠다.

그래서 칠곡병원은 다양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2026년 완공 예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드라이브스루 및 워크스루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였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설과 장비, 여기에 더해 경영진의 유연한 사고,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더해지면 향후 닥쳐올 새로운 팬데믹에도 대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시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칠곡병원의 권기태 교수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다. 첫째로, 의료와 관련 기본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는 것이다. 병에 대한 치료제, 백신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되어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사전에 수행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열려있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혁신은 처음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많기에 열려있는 문화가 갖추어져 있어야지, 비로소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과물로 빛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권기태 교수는 “우리나라는 연구와 문화적 측면에서 이러한 역량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강조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드라이브스루는 시간차가 있었을 뿐, 여러 지자체와 기관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활용되었다. 실제로 칠곡병원과는 별개로 드라이브스루를 시작한 기관들도 있었으며, 그 시간도 3일 차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칠곡병원의 권기태 교수는 ‘드라이브스루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라며 혁신의 중요한 점은 고도의 창의성이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닌, 혁신에 대해 열린 문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드라이브스루의 성공적 도입에 대한 보상을 물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칠곡병원의 이원희 수간호사는 “코로나 대응에 기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보상이 주어진다면 병원장부터 청소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 공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이에 덧붙여 공혜정 간호사는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우리는 병원과 시민을 지켜야겠다는 마음밖엔 없었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이런 상황(코로나19)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경험한다 해도 3년 전과 같은 두려움과 막막함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초사례 인터뷰를 하며,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돌아보고 흐뭇하게 미소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칠곡 경북대병원 직원의 한사람으로 소중한 의미와 보람, 자긍심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태 교수



이원희 수간호사



공혜정 간호사



최초 드라이브스루 주역들과 함께!

2023 정부혁신 최초·최고.BRIEF

- 발 행 일 2023. 10.
- 발 행 처 한국행정연구원
-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 사업책임 김정해 행정안전연구실 실장
- 담 당 자 지규원 행정안전연구실 책임연구원
- 연 락 처 02-2007-0662

※ 본 브리프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